

(주)하림

'2010 글로벌경영대상' SCM경영부문 대상



(주)하림(회장 김홍국)이 일본능률협회 컨설팅(JMAC)에서 주관하는 '2010 글로벌경영대상(Global Excellent Awards)'에서 SCM 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글로벌경영대상은 일본능률협회컨설팅이 2003년 제정해 올해 8회째를 맞는 상으로 글로벌 경영을 목표로 탁월한 업적을 수행한 기업, 기관 또는 제품을 발굴해 우수성을 인증해주는 상이다.

(주)하림은 전 부문이 수요계획과 공급계획, 생산계획이 동기화된 수요층별 관리 공급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미래 수요 가시성이 확보된 SCM 체계를 구축 운영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SCM 시스템은 원료공급에서부터 완제품의 생산, 공급에 이르기까지 사육, 생산, 물류, 영업 전 부문이 전략적인 수급정책과 안정적인 원료육 공급계획, 수요와 연동하는 생산계획, 거래

처에 정시도착 할 수 있는 최적의 운송 라우터를 설계하고 있다.

또한 수요가시성 확보를 위한 예측 시스템 및 사전 정보 제공 등 사내·외 전 부문이 수요공급 계획을 준수하고 소비자, 생산, 사육이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계육업계 최초의 예측 프로그램에 의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간 내에 공급할 수 있는 소비 연동형 공급 체계를 완성했다.

이문용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 감동 경영을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하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또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소비자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림삼계탕,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상 수상



(주)하림의 즉석 삼계탕이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수 농식품 브랜드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11월 18일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식품공업협회가 주관한 '코리아푸드엑스포 2010'에서 하림 즉석 삼계탕이 농

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식품산업,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수 농식품 브랜드를 발굴·육성해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통해 우리 농식품 소비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농식품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원예농산물, 전통식품, 식품·외식브랜드 3개 부문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심사에서는 까다롭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하림을 비롯한 청정원, 굿뜨레 등 총 17점이 브랜드파워로 선정되어 상을 수상했다.

특히 하림삼계탕은 친환경 사육프로그램을 통해 사육된 깨끗한 닭과 함께 인삼, 대추, 찹쌀 등을 사용해 끓인 진한 국물을 급속 냉동 처리한 제품으로 닭고기 육질이 부드럽고 쫄깃해 평가단에게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문용 사장은 “하림의 모든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삼계탕 대미 수출 최종 현장 실사

(주)하림의 대표 상품인 즉석삼계탕의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미 수출을 위해 본사 도계장과 삼계탕 가공공장 라인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받았으며, 대미 수출을 위해 지난 6월 삼계탕 수출 추진 관련 TFT를 구성했다.



이들 TFT는 원료를 생산하는 도계공장부터 가공공장(3본부)까지 HACCP Plan/SSOP 기준서 개정 현장 시설 개선 및 위생관리 기준에 맞게 작업 전, 작업 중 자체 점검을

하며, 미비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했다.

특히 이번 심사를 대비해 타사보다 우월한 하드웨어 부분(생산 설비)에 비해 부족한 소프트웨어 부분(청소 및 위생) 개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USDA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청결 상태를 유지했다.

대미 삼계탕 수출관련해서 총괄 관리를 한 QA팀의 김재옥 차장은 “위생점검을 관장한 검역원 직원들로부터 위생상태 및 청소상태에서 매우 만족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대미 수출의 최종 결과는 약 2개월(60일) 후에 통보될 예정이며, 통과가 되면 오는 2011년 5월경 수출이 가능할 예정이다.

‘매실 닭가슴살 훈제’ 신제품 출시

(주)하림은 소화 흡수에 좋은 매실과 전남 신안군의 천일염을 사용해 만든 신제품 ‘매실 닭가슴살 훈제’를 선보였다.

이번 신제품은 전남 신안군에서 유명한 천일염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세계 5대 천연갯벌 중 하나인 전남 신안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의 주제로



금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신안군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일반 소금에 비해 미네랄 함

량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제품의 컨셉은 '국내산 닭가슴살에 미네랄이 풍부한 전남 신안 천일염으로 맛을 내고 소화흡수에 좋은 매실로 잘 재워 만든 매실 닭가슴살 훈제'이다.

약 1개월 동안 진행된 주부모니터들의 품질 평가도 매우 높게 나타나 제품의 우수성이 기대되는 제품이다.

제품의 특징 중 또 하나는 닭고기와 매실이 매우 잘 어울린다는 점이다. 특히 매실은 닭가슴살 특유의 비릿한 맛을 제거하여 제품의 풍미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소화 흡수를 돕는다는 장점이 있어 제품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었다.

제품 컨셉에 맞게 녹색 톤의 색상을 사용한 포장 디자인도 모니터 평가에서 제품의 이미지를 한층 돋보이게 한다는 평을 받는 등 매우 우수한 점수를 받기도 했다.

제품의 중량은 170g이며 가슴살 2~3덩어리가 들어있다. '매실 닭가슴살 훈제'는 전자레인지나 끓는 물에 봉지채 넣고 데우기만 하면 조리가 완료된다. 샐러드나 야채 등과 같이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12월 중순 이후 대형 할인마트 냉장코너에서 구매 가능하며, 예상 소비자 가격은 4,800원 수준이다.

(주)마니커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거행



2010년 11월 10일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주)마니커(회장 한형석)가 성대한 창립기념 행사를 가졌다.

“전통을 이어 미래로! 열정을 모아 하나로!”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13일 열린 창립 25주년 기념행사에는 한형석 회장을 비롯한 그룹계열사 임직원 1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용인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서 창립기념식을 거행하고 체육대회와 한마음문화축제, 초청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이날 창립기념식에서 한형석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의 마니커그룹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금지와 사명감으로 닭고기산업의 미래를 열자고 당부했다.

닭고기업체 최초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자부심을 안고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임직원들은 계열사와 사업장별로 기량을 겨루고 친목을 다지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한편 이날 종합우승은 단합된 힘을 가장 잘 보

여준 마니커F&G에게 돌아갔다(자세한 내용은 '현장취재' P100 참조).

SBS 주말극장 '웃어요 엄마' 제작지원



(주)마니커가 SBS 주말극장 '웃어요 엄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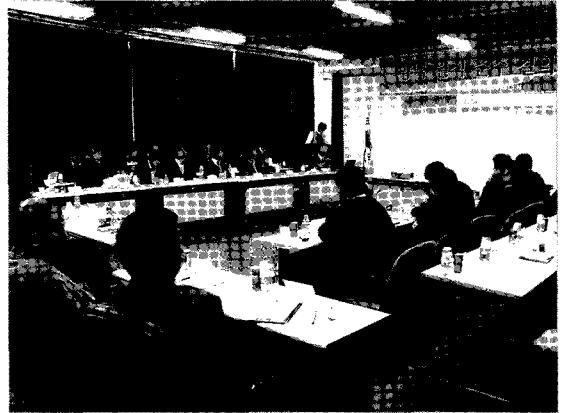
(주)마니커는 지난 11월부터 매주 토, 일요일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되는 '웃어요 엄마'의 메인 제작지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웃어요 엄마'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세 엄마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화해를 다룬 가족드라마로 내년 3월까지 방송될 예정이며, SBS 주말극장은 평균 시청률 20%선을 유지하는 SBS의 대표 코너이다.

방역원칙준수 결의의 날 행사 거행

겨울을 앞두고 방역원칙 준수에 대한 전사적 관심을 유도하고 방역의식 생활화를 위한 결의의 날 행사가 지난 11월 25일 거행되었다.

경영진을 비롯한 관련 부서 및 계열사 임직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마니커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방역팀 은길수 박사의 발표와 질의응답, 결의문 낭독, 경영진 강평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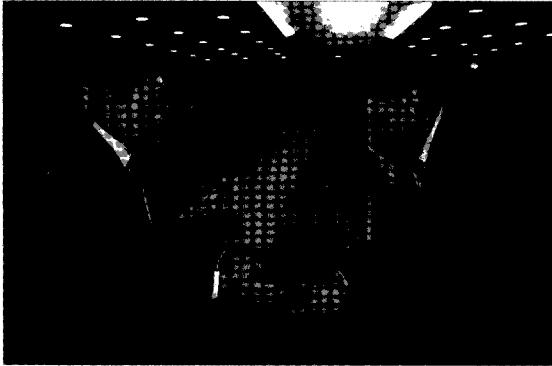
이날 참석한 방역관련 실무 담당자들은 행사를 통해 방역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되었다며, 철저하게 준비하고 관리해서 작은 질병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관련 기사 '세미나' P122 참조).

(주)체리부로

2011 Sales Quota Meeting 개최

(주)체리부로(회장 김인식)는 지난 11월 23일 2011년도 경영계획 수립과 함께 각 영업사원별 목표달성을 위한 2011년 Sales Quota Meeting을 진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개인별/사업부별 목표달성 의식을 고취하는 목적으로 매해 연말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2010년도 실적 발표 및 2011년도 Quota패 수여, 우수 영업



사업 시상식순으로 진행되었다.

판매수수, 신장률, Qouta 달성률 세 가지 항목을 평가한 우수 영업 사업 시상식에서는 평가 항목별로 우수한 실적을 낸 강연성 과장이 최고의 영예인 Salesman of the year상을 수상했고, 2위 Outstanding Salesman은 윤권남 주임이, 3위 Good Salesman은 이경근 과장이 각각 동료들의 축하와 함께 수상하면서 시상금과 부상으로 2011 연중 개최되는 해외 박람회 참가권을 받았다.

김인식 회장은 최일선 현장의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에서 열정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 온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영업담당자 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이 일체가 되어 위해 최고 가치 기업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기를 당부했다.

영업본부 사랑나눔행사 개최

지난 11월 9일 (주)체리부로 영업본부 신선사업부 직원들은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에 위치한 은혜의 집을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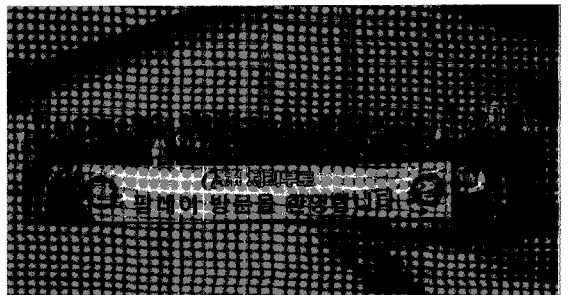
따뜻한 가족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외로이 생활하시는 무의탁 노인 보호시설인 은혜의 집을 방



문한 영업본부 직원들은 하루 종일 곳곳의 시설을 깨끗이 청소하고 편안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미비한 시설보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연말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며 사랑을 나누자는 취지의 이번 방문에 삼계탕 및 가공제품 100인분을 은혜의 집에 전달했으며, 참여한 영업본부 임직원은 작은 힘을 보태어 가까운 이웃과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보람된 행사를 마쳤다.

제1회 CB팜데이 개최



(주)체리부로는 지난 11월 5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아산리 소재 '우리농장'에서 '제1회 CB팜데이'를 개최했다.

CB팜데이는 우수한 사육농가를 선정하여 성공

사례 발표를 통해 사양기술, 경험, 시행착오 등을 공유함으로써 계열농가의 전반적 생산성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제1회 CB팜데이 농가로는 육계사업에 뛰어든지 불과 1년 만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유명찬, 유명진, 유명태 3형제가 운영하는 우리농장이 선정되었다.

우리농장을 운영하는 3형제는 일본에서 8~9년간 직장생활과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귀국하여 다방면으로 사업아이템을 구상하던 중 육계사육의 자금회전율이 높고 안정적인 고소득이 보장되는 장점에 매력을 갖게 되어 고향인 청양에서 육계사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젊은 열정과 그간의 사업경험 등을 발판 삼아 육계 사육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접목시켜 지난해에 계사 2동에 회당 약 7만수를 6회에 걸쳐 출하하면서 평균 1.726의 사료 요구율에 생산지수 274라는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물론 그들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경험미숙과 자동화 설비에 대한 맹신으로 2회차에 쿨링패드 과다사용에 의한 앞몰림 현상과 결로발생으로 3, 4회차에는 감보로 발생으로 출하성적이 좋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농장에서는 계사 가장자리 옹벽을 코팅처리하고 철저한 깔짚 관리와 농장 입구에서 사료차가 출입 시마다 소독을 실시했다.

출하 후에는 4급 암모늄 및 복합제제와 포르말린 소독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자동화 설비에만 의지하지 않고, 3시간에 한번씩 계사의 닭들을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때 적절한 처치를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금년에 계사 2동을 더 증축하고 3회차부터 사육수수를 2배로 늘려 사육하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4회차까지

사료요구율 1.698, 생산지수 290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월등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성화식품(주)

이지가족 친선축구대회 개최



올 들어 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11월 15일 밤은 성화식품(주)과 (주)한국냉장의 열띤 축구경기와 양회사간 화합으로 청주 직산 스포츠센터의 밤하늘을 녹였다.

이날 경기는 성화식품(주)가 이지바이오시스템의 한 가족사로 편입되면서 가진 첫 회합의 장으로 의미가 있고, 인근에 위치한 (주)한국냉장과 유대를 강화하면서 상호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는 행사였다.

박희권 신규사업본부장은 두 회사가 보여준 스포츠 정신을 살려 식품회사로서 고객의 건강을 책임지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길 당부했다.

처음 만남이 좋았기에 다른 동호회 활동도 가족사간에 인연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